

■ 독자투고

노 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
이 있었읍니다.
한 나그네는 두 길을 다 가 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돌아간 끝
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읍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 길을 택했읍니
다.

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일찌기 농자자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이라 하였다. 즉 이말은 농촌의 발전이 없이는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농촌현실은 어찌한가? 60년대 이래 정부의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저곡가

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한 주위여건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정신혁명인 가치관의 재정립이다. 오늘날 농촌의 현실이 어둡다하여 불을 밝히려 들지는 않고 떠난다면 농촌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며, 모두가 높은 보수만 주는 직업을 찾아 다니는 철새와 같은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국가와 민족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젊은이들은 더 높은 꿈과 이상을 갖고, 정들었던 농촌을 떠났던 우리 흙의 형제들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농촌부흥의 주역이 되고, 그동안 소외당한 농축산인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농촌을 지키고 가꾸며 사랑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인생의 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다. 아무런 삶의 목적없이 오로지 잘 살기 위하여 걷는다면 그는 먼 훗날 가지 않았던 길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환상에 사로잡힌 탄탄대로만을 보지 말고 미래지향적 사고 아래 인생의 길을 찾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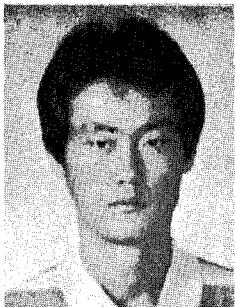
정책을 실시한 결과 농촌은 더욱더 폐폐화되고 빈곤 속에 빠졌으며 심지어 농축산인들은 소외감마저 느낀 나머지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지금은 노인들과 부녀자들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계장을 비롯한 일부 농장에서는 관리인 조차 구할 수 없어 직업안내소를 찾는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보호무역의 장벽은 날로 높아지고 식량조차 무기화되는 중요한 시대에 이 나라 주인인 농축산인들이 더 이상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고, 그들의 피와 땀과 한이 서린 정든 땅을 떠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은 물론 직접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민

농촌부흥의 주역이 되어



안희송

고려산업(주) 해표사료 기술부

지난 학창시절 즐겨외던 R.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문득 떠오른다. 이 시는 두 갈래 길을 다 가보고 싶어하는 나그네가 한쪽 길을 선택한 뒤 가보지 못한 길을 동경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길"과 같다. 길에는 여려갈래가 있듯이 인생도 서로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경험을 체험하며 서로 다른 방식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또 한 한번 선택했던 길은 되돌아 가기가 어렵듯이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로지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바로 선택하지 않은 길이 더 넓고 평坦해 보일 지라도 자기가 정한 그 길이 가치있고 행복한 삶이 된다면 그 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이 무지와 빈곤에 서러움 받은 흙의 형제들과 같이 가는 길이라면 복지로운 농촌이 건설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손을 마주잡고 덩실덩실 어깨춤추며 인생의 참 맛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여!

농촌의 발전없이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은 없다. 우리 모두 농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농촌혁명의 기수가 되어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하는데 선봉에 서자! 양계